

KIPI, WIPO와 협력체제 본격화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와 한국특허정보원(KIPI)의 협력체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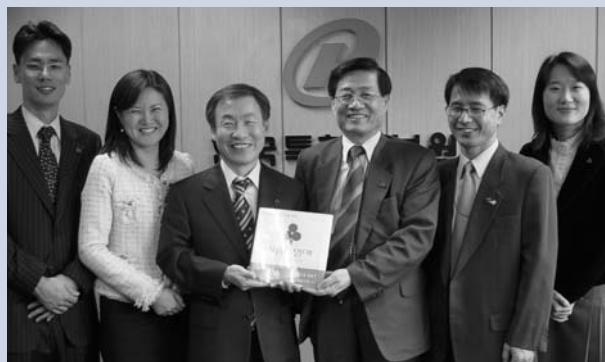
지난 3월 7일 WIPO의 Neil Wilson PCT정보시스템 국장이 한국특허정보원을 방문, 해외 특허정보의 교류 및 한국특허정보의 해외 보급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Wilson 국장은 이날 4시간에 걸친 토의를 마치고, “KIPI와의 논의를 통해 홀륭한 성과를 거뒀다”며, “추후 KIPI와의 협력방안이 곧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Wilson 국장은 한국특허정보원이 특허청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특허문서전자화센터를 돌아보며, 특허문서전자화 공정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특허문서전자화 공정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에 대해 WIPO 회원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은 WIPO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특허정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세계적인 특허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특허정보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헌활동 지속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휴, 현혈 등 다양한 활동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4월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李世中 : www.chest.or.kr)에서 진행하는 ‘행복한 월급봉투 캠페인『한사랑캠페인』’ 제휴를 맺고 후원약정을 체결했다.

행복한 월급봉투 캠페인

『한사랑캠페인』은 한국특허정보원 임직원들이 월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지정위탁 후원단체를 후원하는 것. 이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은 한국아동복지연합회를 지정위탁 후원 단체로 선정하고, 빈민아동, 결식아동, 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소외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적,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외아동의 창의력 계발을 위해 회사 견학, 독후감 대회, 과학 발명품 아이디어 대회 등을 실시하고, 개별적인 특기적성에 맞는 과학기자재와 도서를 보급한다.

이를 통해 미래 과학자로서의 푸른 꿈을 설계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 꿈 드림(Dream)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하루 전인 4일에는 임직원 90여 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으며, 이날 기증된 헌혈증 70여 장은 혈액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병상의 이웃에게 전달됐다.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전 임직원이 주위 이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특허정보원, 순천대학교와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조사·분석 업무협약 체결



한국특허정보원은 4월 7일 12시 순천대학교(총장 金在基: www.sunchon.ac.kr)와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분석 업무 및 정보의 상호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출원지원 및 특허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특허정보원과 순천대학교는 이날 순천대학교 총장실에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력과 상호 유대증진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의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각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 동향 조사분석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정보 상호교류, ▶ 특허정보, 특허분쟁 등에 대한 상호 세미나, 워크샵 실시, ▶ 기술기

획·평가 전문가, 특허분석 전문가 Pool 상호 활용 추진, ▶ 특허 출원지원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교류 및 공동 활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특허지원방안을 공동으로 수립·지원함으로써 특허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토대로 대학원에서의 특허정보 활용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대학 내 기술연구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화는 물론, 학문의 장인 대학내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 기술발전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회전익기(헬리콥터) 기술 특허분석 공개세미나, 줄기세포특허 심층분석사업 결과 공개발표회 개최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부터 한국특허정보원 6층 교육장에서 회전익기(헬리콥터) 기술 특허분석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전익기 체계 및 국산화 대상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특허분석을 통해 기술 발전추이 및 흐름을 예측하여 한국형 헬기기술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한 이번 세미나는 항공전문가 60여 명이 참석,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회전익기기술 특허분석의 개요와 국가별 특허분석 및 기술수준 분석 등에 대해 한국특허정보원 특허분석전문가의 발표가 있었으며, 참가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4월 26일에는 줄기세포특허 심층분석사업 결과 공개발표회가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이 주최한 이번 공개 발표회는 줄기세포 특허의 심층분석 결과를 통해 유관분야 연구자들에 대한



특허마인드를 확산하고, 전략적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줄기 세포 최근 동향이란 주제로 포천중문의대 정형민 박사가 발표했으며, 특허

청 이충호 심사관의 생명공학 심사실무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뒤를 이어 줄기세포 특허 심층분석이란 주제로 한국특허정보원의 윤혜진 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이날 공개발표회에는 최근 줄기세포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200여 명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됐다.

5월 발명의 달 기념 다채로운 행사 개최

한국특허정보원은 5월 발명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다채로운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척도인 동시에 과학기술 정책의 지표인 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 인식과 저변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학생발명 무료 특허정보조사분석서비스」, 「한국의 특허동향 2005 온라인 특강」, 「IPC 경진대회」, 「재미있는 발명 공모」 및 다양한 이벤트 등이 실시된다.

「학생발명 무료 특허정보조사분석 서비스」는 학생 발명가 육성을 위해 유료로 제공되는 선행기술조사분석 서비스를 발명의 달인 5월 한달 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아이디어 발상단계에서부터 특허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발명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미래의 우수한 발명가 양성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발명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특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중인 전국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행사참여방법은 참가신청서(홈페이지 www.forx.org 다운로드), 기술내용 설명서(출원한 경우는 출원명세서) 및 학생증(재학증명서) 사본을 5월 31일(수)까지 한국특허정보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신청한 모든 학생 발명가는 한국특허정보원 전문가의 면밀한 조사분석을 거친 선행기술조사분석 보고서를 제공받게 된다.

「한국의 특허동향 2005 온라인 특강」은 특허정보의 활용 방법, 기술별, 출원인별, 지역별, OECD 국가 및 주요 경쟁국별 등의 특허분석 지표를 이용한 국내 특허동향을 동영상 강의 방식으로 온라인(www.forx.org)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IPC 경진대회」는 국제특허분류(IPC)와 관련된 경진대회의 실시를 통하여 IPC에 대한 이해 및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재미있는 발명 공모」는 특히 · 실용신안 공보 중에서 신기하거나 재미있는 발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공모하고 이를 선별하여 홈페이지 Live Poll을 통하여 순위를 결정, 공모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특허정보원은 5월 한달 동안 선행기술조사를 신청하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발명의 달을 기념하는 고급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특허 정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한층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지속적인 대국민 특허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최상의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특허정보원 발전을 위한 워크샵 실시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용인 소재 흥국생명 연수원에서 한국특허정보원 발전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했다.

그룹장 이상 임직원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워크샵은 ‘특허청 혁신내용 소개 및 특허정보원의 역할 제고’라는 주제로 특허청 박호형 혁신팀장의 강연과 한국표준협회 김인백 전문위원의 ‘변화를 통한 의식전환 모색’,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황상철 컨설턴트의 ‘관리자의 역할 제고’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이어 임직원의 단합을 다지는 체육대회가 이어졌다.

유영기 원장은 “변화와 혁신만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며, 전 직원이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자기혁신 노력을 기울일 때, 한국특허정보원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4월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 이용자 초청 특허정보검색 교육 실시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4월 12일 한국특허정보원 6층 교육장에서 KIPRIS 이용자를 대상으로 특허정보서비스(KIPRIS) 정보검색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KIPRIS 정보검색 교육에는 KIPRIS 이용자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정보의 개념 및 중요성, KIPRIS 검색 방법(디자인 검색) 등이 소개됐다.

KIPRIS 이용자 초청 특허정보검색 교육은 매월 3째주 수요일에 실시되며, 오는 5월 17일 실시한다.

참가신청은 온라인(www.kipris.or.kr)을 통해 접수하며, 5월 교육 내용은 상표 검색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특허정보원 성과관리 체계 도입 설명회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4월 14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인사조직 컨설팅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이를 통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한국특허정보원의 발전과 더불어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것이다.

특허정보서비스 체험단 발족

한국특허정보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관찰한 특허정보서비스의 평가 및 보완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 특허정보서비스 체험단을 발족하고 총체적인 서비스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발족한 특허정보서비스 체험단은 특허서비스 문외한의 관점에서 우리 정보원의 특허정보서비스를 체험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개선점 및 불편사항, 문제점 등을 발견함으로써 이를 개선, 정비하여 보다 내실있는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허정보서비스 체험단은 내부직원(신입사원 및 입사 2년차 이하 직원)과 외부 고객(설계 선행기술조사 의뢰고객)을 체험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암행평가와 서비스 프로세스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은 이번 특허정보서비스 체험단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국특허정보원 내방 인사



■ 포항테크노파크 이성재 원장이 지난 2월 17일 우리 원을 방문,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지난 4월 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자 일행은 지식재산에 대한 대통령 자문보고와 관련한 업무협조를 위해 우리 원을 방문했다.



■ 태국특허청의 카미손 청장과 대표단 일행이 지난 4월 25일 한국의 특허정보보급체계 및 사업수행 현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우리 원을 방문했다.